

# 미술

## 이천 년을 이어온 유산



두루마리 그림  
가스가 신코즈(국립공문  
서관) (사진제공 : 국립  
공문서관)

다양한 요인들이 일본 미술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세기에 걸쳐 기술적 그리고 미학적으로 일본 미술은 일부는 한국을 통해 전해진 중국의 미술양식과 문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서양의 기술과 미적 가치도 일본의 미술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다른 문화로부터 사상과 기술을 흡수하여 오랜 기간 동안 표현해 온 것은 전적으로 일본적인 취향의 고유한 표현이었다.

### 고대

일본에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조몬인

(기원전 약 10,000년에서 기원전 300년까지)으로 대부분 여성을 표현한 '도구'라고 하는 토우를 만들었다. 그 후에 또 다른 이주민이었던 야요이인(기원전 약 300년에서 기원 300년까지)은 이 시기의 초기에 구리로 된 무기와 동으로 된 종 및 가마에서 구운 도자기를 만들었다. 고훈(투물루스)시대(기원 약 300년에서 기원 710년)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유물들은 청동 거울과 '하니와'라고 하는 진흙 조각상이며 무덤 밖에서 출토되었다.

야요이 시대에 만들어진 종인 '도타쿠'에 그려진 간단한 선 그림과 고훈 시대의 고분의 내벽을 장식했던 벽화는 일본 회화의 기원을 알려준다.



## 불교와 중국의 영향

회화는 통치세력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불교와 불교문화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였던 6세기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7세기 후반과 8세기 초반부터 그려진 회화는 6조 시대(222-589) 후기에 중국에서 발전한 양식을 따라 그려졌다. 그것들은 부처의 일생을 그렸으며 다른 불교 신들을 묘사하였다. 10세기 이후에 그림은 점점 주도 신교(정토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통치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지역에 절과 수도원이 지어졌다. 유명한 예로 아수카데라, 시텐노지 및 호류지가 있다. 이러한 절 건물들, 특히 집회장과 예배당의 내부는 상당히 많은 불화로 장식되어 있다. 호류지의 콘도(금당)의 벽화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회화에 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절에서 다양한 부처와 보살 그리고 수호신의 조각들도 볼 수 있다. 그것들 중 주요 작품으로는 호류지에 있는 조각인 샤카삼신상이 있다.

헤이안 시대(794-1185) 중엽에는 ‘야마토-에’라고 하는 상당히 독특한 형식이 중국풍 회화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야마토-에’는 교토 주변의 경치를 묘사했으며 여단이 및 접이식 병풍에서 작품 초기의 예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롭고 독특한 형식과 더불어 작은 그림과 ‘에마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의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회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겐지 이야기’ 두루마리(ca 1120)는 가장 유명한 ‘에마키’이다.

12세기 후반에 권력이 귀족세력에서 ‘사무라이’ 계급으로 엄청난 권력 이동이 있었지만 귀족세력은 절과 신사의 관리자들과 함께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의 후원자로 남아있었다. 새로운 정부 소재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가마쿠라 시대(1185경-1333)는 ‘사무라이’ 계급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주의와 귀족 계급의 미적 취향을 축약해서 표현한 보수주의의 두 가지 중요한 경향으로 특징지어진다.

현실주의는 조각의 형태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게이 파(현실주의 조각형식의 창안자들)의 가장 유명한 조각가인 운케이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 중에는 토다이지의 문에 있는 두 개의 니오 수호신상과 고후쿠지에 있는 두 명의 인도 현자인 무차쿠와 세신의 목상이 있다.

13세기에 널리 퍼진 선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건축과 미술 작품을 소개하였다. 14세기에 등장한 두루마리 그림은 상당 부분 가마쿠라와 교토의 주요 선 수도원에 기원을 두는 수묵화의 근간이 되었다. 선 미술가들과 주요 지지층들은 성(960-1279)과 위안(1271-1368) 중국에서 유래한 엄숙한 단색 화법을 선호하였다. 1400년대 말에 선 미술가들과 교토에 있던 그들의 후원자들은 ‘수이보쿠가’라고 하는 단색 풍경화에 대한 기호를 발전시켰다. 선 미술가들 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의 회화를 공부한 수도사인 셋슈가 있었다.

16세기 후반에 회화는 오다 노부나가와 같은 강력한 군주의 지원을 받은 간노 파가 지배하였다. 그들은 병풍이나 벽화의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준 다색 양식을 사용하였다. 이 화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간노 에이토쿠이다.

## 에도 시대 (1603-1867)

1603년대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 에도(옛날의 도쿄)와 교토의 상인들은 막부의 보호 하에 더욱 더 부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문화 활동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

칸네이라고 불리는 기간(1624-1644)의 회화는 교토의 가모가와 강 옆의 환락가에 모여든 다양한 사회적 계급의 사람들을 묘사했다. ‘우키요-에’로 알려진 미술 장르가 예찬



받았던, ‘우키요’ (떠있는 세계) 의 구속받지 않는 생활습관이 퍼져있던 그와 같은 거리는 오사카와 에도에도 존재했다. 종종 흥등와 ‘가부키’극장을 그렸던 이 ‘우키요 - 에’ 는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18세기 초기에 회화의 형태로 처음으로 생산되었던 ‘우키요 - 에’ 는 주로 목판화로 제작되었다.

인쇄된 ‘우키요 - 에’ 의 초기 형식 중에는 ‘가’ (포르노그래픽 그림) 라고 하는 성 안내서도 있었다. 이러한 책과 그림첩에는 아주 적나라한 연애장면이 실려 있었다. 또한, 머리를 감는 것처럼 평범한 활동과 주로 관련된, 그 시대의 유명한 매춘부의 인물화를 포함한, 설명이 실린 그림책들도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인물들의 자세나 기모노를 걸친 장면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우키요 - 에’ 의 주요 활동 무대가 교토 - 오사카 지역에서 ‘가부키’ 배우의 초상화가 일반적인 주제가 되었던 에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우키요 - 에’ 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18세기 후반, ‘우키요 - 에’ 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특히 도리이 키요나카의 작품에 등장하는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은 1780년대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1790년대 이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였다. 기타가와 우타마로, 도슈사이 슈라쿠, 안노 히로시게 및 우타가와 쿠니요시와 같이 이러한 화풍을 도입한 미술가들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명하다.

19세기에 유럽의 위대한 미술가들을 포함하여 몇몇 서양인들에게 ‘우키요 - 에’ 는 단순한 성적인 미술의 한 형식 이상이었다. 에드가 데가스와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미술가들은 ‘우키요 - 에’ 의 형식상의 구성, 관점 및 색채의 사용을 차용하였다. 서양 미술에서는 드물었던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들은 미술가들이 그리는 회화의 주제 범위를 넓혀주었다. 프랑스의 미술가이자 유리 디자이너였던 에밀 갈레는 호쿠사이의 물고기 스케치를 그의 화병 장식에 사용하였다.

간노파는 계속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 나갔고 도쿠가와 막부의 미술 학교를 설립하고 관리하였다. 당시의 관계당국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대화가로부터 도제로 전승되는 방식을 통해 전통이 계승된 간노파와는 대조적으로, 린파파는 당시의 일반적인 전승방식이라고 보다는 다른 화가로부터 얻은 영감과 영향을 통해 발전한 화풍이었다. 가장 잘 알려진 린파파 인물인 오가타 고린은 에도시대 (1603-1867)중기에 활동한 인물이다. 간노파의 대화가에게 견승생이 된 적이 있는 고린은 선명하고 굵은 작품과 디자인으로 알려진 쇼타츠 타와라야와 같은 선대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고린은 그 시대의 새로운 감성을 반영한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 장식 미학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알려진 그의 스타일은 회화 뿐만 아니라 공예 미술에까지 예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메이지 시대 (1868-1912) 에 접어들면서 서양화 정책을 통해 그 주제와 생명력을 묘사 하였던 ‘우키요’ 문화와 항상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우키요 - 에’ 는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유럽의 회화는 에도 시대 이후에 상당수의 일본의 미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마루야마 오교, 마츠무라 고슌 및 이토 가쿠츠와 같은 주요 미술가들은 일본, 중국의 특징과 서양의 형식을 결합하였다.

## 현대

일본의 문화는 서양의 기술과 정부 개념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적절한 것들은 채택되면서 메이지 시대에 꽤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 근대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서양의 화풍이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부는 많은 수의 화가들을 해외로 보내 공부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일본화풍과 새로운 서양화풍 간의 대립이 수십 년간 존재한 후인 다이쇼 시대



(1912-1926) 에는 미술에 대한 서양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우메하라 류자부로와 야스이 소타로와 같은 화가들은 폴 세잔, 피에르 오그스트 르누아르 및 카미유 피사로의 화풍을 연구하고 장려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야스이와 우메하라는 일본에서 전혀 독창적이지 않은 서양화풍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우메하라는 그의 작품에 일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서양 화풍을 추구하는 다른 일본 미술가들이 더욱 창의적이 되도록 자극하기 위한 혁신적인 반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 회화의 근대화는 야스다 유허히코와 고바야시 고에이를 선두로 지속되었다. 다른 화가들은 유명한 주제를 채택하고 더욱 자주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본화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양식 조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힘을 얻게 된 것은 미술가들이 서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때인 20세기 초였다. 그러한 조각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귀스트 로댕의 양식을 소개하고 일본 조각의 근대화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오기와라 모리에가 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조각가로는 로댕의 미술관을 번역하였고 뛰어난 시인이기도 한 다카무라 고타로를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암흑기를 지나자 일본의 미술은 그 독창성을 빠르게 회복하였다. 전후 서양의 미술경향은 팝아트, 옹아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미니멀아트, 키네틱아트 및 아상블라주와 같은 미술 장르들이 일본에서 빠르게 흡수되었다.

전통적으로 일본 미술은 다른 문화의 미술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지금 일본 미술가들은 독창적인 창작자이자 세계 미술계의 공헌자로서의 그들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찾고 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언급하자면 한 사람은 1953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195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작품을 발표하였고 1970년 오사카에서 열렸던 국제 박람회의 심벌과 ‘다이요노 토’ (선 타워) 를 디자인한 오카모토 타로이며 또 한 사람은 에로티시즘과 아이러니가 가득 찬 수많은 인쇄 작품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케다 마사오이다. 이케다는 또한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판화로 그랑프리를 받았다. 또한, 히라야마 이쿠오는 환상적인 실크로드 풍경을 묘사한 그의 그림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던 이와사키 치히로는 어린이 초상화로 다방면에 걸쳐 호평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 중 대부분은 그림책을 위해 그린 것이었고 그러한 책은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출판되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고통받았던 환영을 그리려고 그림을 시작한 쿠사마 야요이는 점과 그물로 반복적인 모티브의 회화와 그 밖의 작품을 만들어 선보이며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어린 여자아이가 노려보는 눈을 하는 귀엽기도 하면서 괴상한 세계를 그리는 요시모토 나라, 등신대의 여성 인물을 그린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전형적인 일본 문화를 그리는 무라카미 다카시와 같은 작가는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 현대 미술품

쿠사마 야요이의 설치 미술  
도쿄 긴자의 빌딩 안에 있는  
“Pumpkins”

©YAYOI KUSAMA  
(사진 제공: 긴자 식스)